

[2012-04-05 09:02]

인쇄하기

### [투데이갤러리]홍경택의 'Pens 3 부분'

\*5~29일 두산갤러리에서 전시



Pens 3 부분(259X776cm oil on linen 2001~2010)

[아시아투데이=전혜원 기자] 홍경택은 볼펜, 연필, 책 등 일상적인 사물들로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이를 강렬한 색채로 표현해내는 작가다.

‘펜 3’는 그가 지난 2000년부터 10년에 걸쳐 완성한 8m 크기의 대작이다.

홍경택은 평범한 물체들을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로 변형시킨다. 화려하기 그지 없는 색깔과 매끈한 질감을 가진 필기구들은 그의 캔버스 안에서 마치 무한 증식하듯 화면을 여백 없이 꽉 채운다.

과장된 크기와 색채로 가득하고 여백이 없는 그의 그림은 현실에서 파생되는 강박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현대 사회의 편집증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두산갤러리(02-708-5050)

✉ 전혜원 기자 hwjun@asiatoday.co.kr